

교회소식

- 부서장회의: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예배후 2층 친교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광고회 사경회
 - 일시: 2019. 6. 14-16 (금-주)
 - 강사: Dr. Bryan Widbin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 주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로우심을 닦은 교회
- 교육부: 2019 VBS
 - 일시: 6/27-29, (9:00am-12:30pm on 6/27-28 and 9:00am-2:00pm on 6/29)
 - 등록: 교회 홈페이지에서 online 등록 또는 신청서 직접 제출
 - VBS를 위한 Decoration, Media & Photo, Teachers, Kitchen등 Volunteer를 모집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친교실에 비치된 signup sheet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들

5월 안내: 신미라 권사,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신미라 권사 (시 148)
이번 주 친교: 김동수 장로, 서영수 장로
다음 주 친교: 황혜영 집사, 김행란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4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에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고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Acts 2:1-4, 14-21 ----- Pastor Kim
Sermon	----- “A Spirit-Filled Church”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I Offer My Life”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70장(통79장) “피난처 있으니” ----- 다함께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대표기도	----- 시 23 ----- 송은주 집사
Prayer	Psalm 23
찬양	----- “굳건한 반석”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 121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121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지키시는 그늘 아래서”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다함께
Hymn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Divine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말씀대로 시편 119:169-176

시편 119편의 176절 중 2-3절을 제외한 모든 절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 사용된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한 글자로 시작되는 8절이 한 연을 이뤄 알파벳 순서대로 22 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정성스럽게 말씀에 대해 노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나 다양하고 정성스럽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말씀과의 추억이 쌓여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것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살펴보려 합니다.

“말씀대로”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견져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속에 있는 생각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믿음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잘 깨달아 능력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맡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좋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권에 우리 생각과 소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는 사람에게 놀라운 빛이고 든든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이용하려면 말씀은 점점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말씀은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며, 내 삶이 말씀대로 만들어져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지막 기도는 자기는 잃은 양과 같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달라는 간구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직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서 구원하시라고 기도합니다. 믿고 맡기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잊지않겠다는 말은 지금은 비록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견지지 않을지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다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하나님을 알거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은혜로 알려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귀어 알아가는 데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데 아무리 은혜의 계시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정성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단번에 생각나는 인상으로 말씀을 파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정보만을 얻기 위해 말씀을 속독하지 마십시오. 알고 싶은 사람을 사귀듯이 시간과 정성을 드리십시오.

들리지 않을 때이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무슨 깨달음이나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드린 시간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말씀 앞에 드린 시간만큼 말씀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성과 없이 드린 것 같은 그 시간이 진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Memo